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3

LEET 언어이해 독해 집중훈련



PRACTICE BOOK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actice Book #3 독해 집중훈련
발행일	2025년 9월 1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79,800원
ISBN	979-11-994933-3-9(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2027 서문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actice Book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지난 Principle (상), (하)권을 거쳐오시면서 배우신 The LEET BIBLE의 LEET 공략법은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ET는 철저히 실전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LEET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The LEET BIBLE의 Practice Book은 이런 지점을 겨냥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2027학년도 버전에서 더 커리큘럼이 풍부해진 Practice Book은, 대략적으로 8년 전에서 3년 전의 기출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인 본 교재 기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7개년의 기출문제 대부분을 유형별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는 교재입니다. 이로써 Principle (상), (하) + Practice Book 6종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2017~2023학년도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The LEET BIBLE 방식으로 풀이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부 교재별로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필수 사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은 **덤**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훈련’을 위한 과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 그 즉시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한 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찾아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LEE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본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워오셨던 LEET 접근방법을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LEET라는 시험이 수험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만큼, 본 교재는 원리서이지만 흔히 과목 교과서에서 볼 법한 포맷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세요.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4학년도 추리논증 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정답을 가려낼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Review Note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view Note 양식은 리트바이블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 선별된 모든 문제에는 Review Note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LEET를 준

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LEET 고수가 적은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학습했던 선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Review Note를 통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렵구나”를 넘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actice Book의 단계에서는 정답 그 자체보다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대응 방식이 본서에서 소개하는 실전적 LEET 풀이법을 따랐는지를 되짚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Review Note를 교재의 예시와 비교하며 검토하면, 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LEET 언어이해 독해 설명서 8

1. 독해 집중훈련 교재의 집필 의도 10
2. The LEET BIBLE의 언어이해의 접근 전략 11
3. 제시문의 구조별 유의사항 정리 21
4. 선지 분석과 판단 방법에 대한 각론적 정리 30

CHAPTER

02

이항관계 기본형 연습 34

1. 이항관계 기본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36

CHAPTER

03

과학잡지형 연습 150

1. 과학잡지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52

CHAPTER

04

이항관계 심화형 연습 222

1. 이항관계 심화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224

CHAPTER

05

고전/문학형 연습 446

1. 고전/문학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458

CHAPTER

06

과학원리형 연습 498

1. 과학원리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500

정답지 610

CHAPTER

01

LEET 언어이해 독해 설명서



The
LEET
BIBLE™

“

LEET의 언어이해는
단순히 어렵고 긴
독해문제가 아닙니다.

LEET 언어이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제대로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독해 집중훈련 접근 설명서

The LEET BIBLE

1 독해 집중훈련 교재의 집필 의도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시리즈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한 부분은 바로 언어이해 독해 집중 훈련 편입니다. 그 이유는, 수험생 여러분께서 추리논증 유형에서는 비교적 형식적 사고를 수월하게 적용하시는 반면,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유독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지점에서 Principle (하) 권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 작업은, 여러분께 최대한 다양한 LEET 제시문을 접하게 해드리며, 이 과정에서 수험생 텍스트가 갖는 구조, 반복되는 문제 출제 방식에 익숙해지실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다른 교재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온 내용대로 LEET의 언어이해 영역은 단순한 독해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따라 수능식으로 막연히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LEET 언어이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의 독해 습관이 LEET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제시문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초적인 내공만으로는 충

CHAPTER

02

이항관계 기본형 연습



The
LEET
BIBLE™

“

LEET의 언어이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자
반대로 틀리면 큰일나는
기본점수 제시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익숙해 지셔서
남들은 다 맞히는데 나만 틀리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셔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 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송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다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2. ㉠,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은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은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직면한 위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3. 밑글에 따를 때, 선원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원 A는 책임이 있다.
- ③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④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⑤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판단인 데 반하여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문단]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쟁점 제시]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1문단은 전형적인 수험형 텍스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네아데스의 널 사례를 통하여 난파선에서 한 사람만 지탱할 수 있는 널판을 두 선원(A와 B)이 동시에 잡았고, 선원 A가 선원 B를 밀어내 B는 사망하고 A는 구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해당 사례를 통하여, 윤리적 허용 가능성과 형법상 처벌 여부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쟁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형법상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2문단]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정의]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관계 설정]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2문단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해당 문단은 범죄의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제시합니다.

범죄의 세가지 성립 요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유책한 행위)
관계 설정		

이 3가지 차원 가운데, 2문단은 구성요건 차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해당 정의 자체가 대응 지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형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각인시켜야 할 대상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주요하게 기억해야 할 대상은 항상 변수 간 관계입니다. 즉,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구성요건과 위법성 차원 간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점은 중요 정보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도 확보된다고 하였습니다.

[3문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앞서 구성요건과 위법성 간 관계를 각인시켰다면, 3문단이 제시된 이유 역시 수동적으로 각인이

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하위 차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그 사례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제시됩니다.

각 개념에 대한 세부 정보는 재독해의 대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기/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는 행위 전제: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자기/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특징: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인한 위난에만 한정되지 않음(정당방위와의 차이점) 큰 법익(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은 법익(재산)을 희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음

즉,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해당 지점은 세밀하게 기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위치를 기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4문단]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주장]**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결론] ①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 ②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운 차원: 책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4문단에서는 앞서 제시한 카르네아데스의 널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르면, 선원 A와 B의 널판 잡기는 모두 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선원 A의 행위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절실한 행위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으로서, 이 자체가 대응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다르며,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인정 주장)과 ㉡(긴급피난 성립 주장)의 입장 소개한 이후, 두 입장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필자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즉, 정당방위도, 긴급피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문단]

[결론] ①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 ②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운 차원: 책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위 필자의 결론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는 위법한 침해가 아님)와,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보호한 법익과 침해한 법익이 동등(모두 생명)]를 제시합니다. 해당 세부 정보는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재독해의 대상입니다.

이후, 범죄 성립의 마지막 요건인 '책임' 차원의 고려 필요성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개념 간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6문단]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not only A)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but also B). **[사례에 대한 주장 내지 결론]**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6문단에서는 위법성과 책임의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논의의 평면적 변수인 “개인”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위법성	책임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 고려 안 함)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 (법적 비난 가능성)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적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기대 가능성)

또한, 앞서 카르네아데스의 널 사례의 결론으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비판은 가능하나 법적 비난은 어렵다고 제시합니다. 해당 사례가 제시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소재에 대한 필자의 주장 내지 결론이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전형적으로 재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로서 중요 대응 지점을 추출해야 했습니다.

[1문단]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넙판을 발견하였다. 넙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넙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넙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넙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넙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넙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쟁점 제시]**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결국 사례가 무엇인지 돌아가면 ‘카르네아데스의 널’ 사례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번 선지는 위난을 벗어난 행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사례에 대한 평가가 4문단에서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독해를 위해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시문 4문단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의 위협(위난)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합니다.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사례를 다시 제대로 읽어보면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응 지점이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선원 A가 선원 B를 민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데, 행위 주체가 바뀐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이 아닌 것을 기준인 것처럼 하는 오답 선지였습니다. 선원 A의 행위조차도 책임이 없어 법적 비난이 어렵다고 했으므로, 동일한 상황에서 선원 B가 선원 A를 밀었다면 똑같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선지는 차원의 구획이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기억이 나는 선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5문단에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는 살인죄의 구성요건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해당 선지 역시, 차원의 구획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4번 선지는 윤리적 타당성과 형법상 비난 가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정오를 따지기에 앞서, 항상 관계의 유무를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시문 6문단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송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선원 A의 행위가 윤리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비난하기 어렵다는 의

미입니다. 즉, 윤리적 타당성과 형법성 비난 가부는 별개의 차원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항상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4번에서 썼던 시간이 그대로 5번에도 쓰였습니다. 한번 재독해할 때 제대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시문 6문단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원 A가 자신을 희생해 선원 B를 살렸다면 윤리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방위 인정), ㉡(긴급피난 성립)에 대한 재독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 국 주요 형식적 변수를 기준으로 차원의 구획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기/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는 행위 전제: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자기/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특징: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인한 위난에만 한정되지 않음(정당방위와의 차이점) 큰 법익(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은 법익(재산)을 희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음

두 개념의 공통 상위 차원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지점은, 이 논의가 '위법성'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념 모두 위법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차원에서의 논의입니다.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3문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